

다리를 강타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지금은 그 옆으로 튼튼한 다리가 새로 놓여 무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제 죽어라 걷기 시작하였다. 목리로 넘어가는 고개는 쉽지 않았다. 그나마도 변성암 산을 까고 까서 만든 고개였다. 그러나 그곳을 넘어선 목리는 걸어온 값을 해 주었다. 자그마한 마을이지만 아담하고 아름다웠다. 게다가 마을 앞에는 해신당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 추자도의 마을에는 제주도의 마을과는 달리 마을 앞에 마을을 지키는 담단이 없었다. 목리 정도이면 제주에서라면 분명 담단이 최소한 한 개는 세워져 있을 법하다. 이 마을은 물이 얼마나 귀하었는지 내가 본 것만도 우물이 6개나 되었다.

신양리에 이르렀는데도 시간이 겨우 12시일뿐이다. 라면을 끓여 먹고도 시간이 남는다. 배가 떠나는 시간은 4시이다. 먼저 방과제로 갔다. 울릉도 저동항 방과제가 떠올랐다. 그곳에선 모두 나물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여기선 모두 미역이다. 가까이 가보니 그간 보았던 미역과는 좀 달라 보여 말을 걸었다. 자연산이란다. 내가 자랑스럽게 홍도에서 먹었던 미역 이야기를 하



사진 17 추자교(오른편에 구 추자교 흔적, 등대전망대가 왼편으로 멀리보인다)



사진 18 목리와 해신당



사진 19 방과제에서 미역 말리기

였더니, 날 달리 보는 것 같았다(이 사람은 미역 맛을 아는 사람이다 정도의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말이 나온 김에 10kg을 주문하였다. 값은 꽤 나갔지만 흥도 미역과 같다는 말에 주문하였다.

그리고 보니 온통 동네가 미역으로 덮이다 시피하고 있다. 시간이 남아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터미널로 갔다. 미리 예약을 하려고. 그런데 웬일인지 문이 닫혀 있다. 돌아오려다 뭔가의 쪽지를 발견하였다. ‘오늘은 휴향’ 지금까지의 모든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내일이라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오지 않는 항구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다. 그저 텅 빈 콘크리트 바닥 위에 바람소리만이 요란을 떨 뿐이다.

이제부터 섬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날씨와 관련되었다. 슈퍼에서도 민박집에서도. 아까 만났던 미역 아저씨와도. 내일도 불확실하였다. 잘하면 오후에나 풀린단다. 온통 날씨에 모든 것을 걸고 아침을 맞았다. 처음 한 일이 역시 티비뉴스 날씨보는 것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밤새 예보가 더 악화되었다. 오늘 밤이나 되어야 풍랑주의보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정



사진 20 주의보가 내려진 날의 신양리항



사진 21 주의보가 내려진 날 포구



사진 22 봉굴레산에서의 추자항

말 예보 안 맞는구나 하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답사하기로 하였다. 오늘은 우리가 안 됐는지 할아버지가 상추자에 대려다 준단다.

오늘은 어제 보지 못한 추자항을 만들고 있는 봉굴레산을 오르기로 하였다. 그곳에는 최영장군 사당이 있고, 추자항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다. 산을 오르는데 바람이 보통이 아니다. 온갖 바람을 다 겪은 나이지만 사진 찍기 어려울 정도이다. 산을 중간쯤 올랐을 무렵 추자항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내 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었다. 11시 30분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목포에서 오는 배가 들어오니 제주 갈 사람은 배 타러 나오라는 것이다. 정말 지옥에서 천당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저절로 입이

벌어졌다. 봉굴레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추자항은 어제의 추자항보다 더 멋있게 들어왔다. 산불조심 아저씨가 오늘은 날씨가 안 좋다고만 자꾸 이야기 하는데 너무도 날씨가 좋아보였다. 그 안내 방송 하나가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내년 아니면 또 내년에 이 정상을 다시 찾으리라!

아쉬움도 많으려면, 방과제 안으로 들어오는 그제의 한일고속이 반갑기만 하였다. 사실 이미 저 배가 추자로 출항하였다는 소식을 일찍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완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서도 역시 항상 섬을 떠날 때에 느끼는 아쉬움보다 이제 가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묶여봐야 섬을 안단 말을 실감한다. 그래 묶여봐야 섬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난 제주도를 섬이라 거의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묶이고 나서 섬임을 깨달았던 적이 있다.



사진 23 신양항으로 들어오는 한일카페리호



사진 24 멀어지는 신양항